

일본의 「니트·데이」 행사로

모델의 샘플착용 플로어·쇼로 니트상품 해설

지난 7월 12일 오사까니트공업조합과 오사까니트공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제23회 니트·데이” 행사를 오사까 니트회관에서 개최하고, 게스트·스피커(guest speaker : 특별초청강사)로부터 “소비자는 지금의 저가격상품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현재 유행하고 있는 아이템에 대하여 패션모델이 직접 샘플옷을 입고 플로어·쇼(floor show)를 함으로써 많은 참석자들은 니트상품의 실물을 보면서 상품동향의 해설을 듣고 예리하고 미묘한 상품의 포인트를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었다.

값이 싸기만 한 해외상품과 비교하여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은 여러모로 머리를 써서 꼼꼼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값은 비싸지만 날개돋친 듯이 잘 팔리고 있다. 니트·셔츠는 직물로 된 셔츠의 봉제방법으로는 깔끔하게 꿰맬 수 없어 일본만의 독자적인 방법으로 꿰매야 상품을 살릴 수 있다.

또한 내년 춘하절의 큰 흐름은 직물의 종이본으로 만드는 니트·셔츠와 같이 산뜻하고 신선한 니트·셔츠가 될 징조가 보인다.